

아쿠다가와(芥川)의 사색(思索)과 죽음

- 자살을 하는 인간심리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2 고독과 불안의 증첩 |
| 2. 죽음과 종래의 논리 | 4.3 삶과 사랑 |
| 3. 사색과 죽음 | 5. 결 론 |
| 4. 자살의 인간심리 | |
| 4.1 고독과 모친 | |

主題語: 아쿠다가와(AKUTAKAWA), 죽음(Death), 생(Life), 사색(Meditation), 자살(Suicide), 고독(Loneliness), 욕구충동(Mpulsion)

1. 서론

쇼와 2년(1927) 7월 24일 새벽, 아쿠다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이후, 아쿠다가와라고 함)는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향년 35세의 나이로 자살하였다. 유작으로 남겨진 『齒車』『ある阿保の一生』『続西方の人』 등의 작품에는 각기 다른 형태로 죽음을 바라보는 아쿠다가와의 자세가 투영되어져 있다. 당시 다이쇼시대의 시민문학을 대표¹⁾하는 아쿠다가와의 자살은, 단순한 한 사람의 문학자 죽음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다.

「文学者の尖鋭な神経はいつも一番早く時代の苦悩を感じる」²⁾

라는 논평을 시작으로 각 언론에서 추도문을 게재하였고 「文藝春秋」「中央公論」「改造」「新潮」「三田文学」 등의 잡지에서도 추도특집과 소 특집을 게재하였다. 한 문학자의 죽음이 이렇게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아쿠다가와 문학작가론사전『죽음과 그의 시대』, p.70

2) 오사카 아사히신문 쇼와2년(1927) 7월 25일자

사회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크게 특필된 경우는 없었다. 이전 아쿠다가와는,

「我々は何かの拍子に死の魅力を感じたが、最後…中略…ぢりぢ리死の前へ歩み寄るのである」³⁾

라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오랜 친구인 久米正雄에게 의탁하는 형식을 빌어 『ある阿保の一生』에서 「度々死の与える平和を考へ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라는 말을 비롯하여 죽음을 향해 매료 된 많은 단편들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아쿠다가와를 두고 본고에서는, 인간은 왜 죽음을 선택하는지 그의 죽음과 당시 그가 놓여 진 상황의 사색문을 통해 검토·고찰해 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아쿠다가와의 죽음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방법으로서 우선 (1) 아쿠다가와의 죽음, 즉 자살에 대한 당시 혹은 근년에 이르는 종래의 논리나 기존설에 대해 검토하고 (2) 아쿠다가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점의 모색으로서 자살을 하는 인간 심리를 아쿠다가와의 경우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에 대한 욕구충동 갈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삶의 욕구충동과 죽음의 욕구충동의 갈등이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자 Freud가 『快感原則의 彼岸』(1920)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시점에서 (3) 아쿠다가와의 경우를 들어, 자신의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던 두 가지 욕구충동을 보아감으로써 아쿠다가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해명을 통해 결국 「生きるとはなにか」에 대한 그의 생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하, 일본어 원문 인용은 아쿠다가와의 경우에 한하였고, 그 외 인용은 한글로 번역하였다.

2. 죽음과 종래의 논리

아쿠다가와는 『ある旧友へ送る手記』라고 이름 붙여진 유서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자살에 대해 해명하고 「この二年ばかりの間は死ぬことばかり考へつづけた」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자살의 방법과 장소, 나아가 자살을 위한 도약대로써 어느 여인을 일시 생각했다는

3) 『侏儒の言葉』

것 등을 기술하면서 그 자살동기에 대해

「ぼくの場合は唯ぼんやりした不安である。何か僕の将来に対する唯ぼんやりした不安である」
僕の今住んでいるのは永のやうに透み渡った病的な神経の世界」

라고 하였다. 그러한 냉혹한 생각 중에서도 「私は他人よりも見、愛し、且又理解した」라는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20년 전에는 스스로 신이라 하고싶다(自ら神にしたい)는 생각이 이제 는 스스로 범부의 한사람(自ら大凡下の一人)이라는 것을 『ある阿保の一生』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로 맺고 있다. 그러한 그의 자살한 배계 밑에는 『성서(聖書)』가 놓여 있었다.

당시, 이러한 아쿠다가와의 자살원인에 대해 菊地寛⁴⁾씨는 편집업무와 의형의 자살에 동반 된 피로가 그의 염세적 인생관과 병고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萩原朔太郎⁵⁾씨는 「그의 자살은 승리에 의한 자살이며, 패배에 따른 자살이 아니다. 죽음에 의해 그 예술을 완성하고 더불어 그의 안에 내재된 詩人을 실증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호의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長谷川如是閑씨는 「예술적이라든지 철학 적이라든지의 특수성⁶⁾」을 부정하였으며, 中村武羅夫씨도 「놀라움 그 이상의 애절함이나 비 통함은 솟아나지 않는다」⁷⁾, 大山宥夫씨는 아쿠다가와의 자살에 대해 「부르조아예술의 막다 른 절박함(ブルジョア芸術の、さし迫った行き詰まり) 및 과정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⁸⁾」 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성행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宮本顯治씨는, 아쿠다가와의 광범한 사회적 관심도 인정하면서도 「부르조아지의 치명적 논리」에 대해 지적하고, 아쿠다 가와의 문학을 패배의 문학으로 규정, 「아쿠다가와씨의 문학을 비판할 수 있는 야만적인 정열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⁹⁾고 하였다. 小林秀雄씨도 「芥川竜之介の美神と宿命¹⁰⁾」에서 아쿠다가와의 작품에는 이지(理智)보다도 신경성적인 정서(情緒)를 보게 되며, 인생을 「결코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신경적인 함수로서만 받아들인 까닭에 「그의 개성은 인격이 되는 것을 멈춘 하나의 현상¹¹⁾」 밖에는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芥川竜之介の事ども」『文芸春秋』昭和2(1927)

5) 「芥川竜之介の死」『改造』昭和2(1927)

“死によってその芸術を完成し、合わせて彼の中の詩人を実証した”

6) 東京朝日新聞昭和2년(1927)9월26일

7) 「芥川氏と私」『文芸春秋』昭和2(1927)

8) 「芥川竜之介の死とその芸術—實踐的自己破壊の芸術」『中央公論』昭和2(1927)

9) “芥川氏の文学を批判しきる野蛮な情熱を持たねばならない”『敗北の文学』『改造』昭和4(1929)

10) 大調和、昭和2(1927)

11) “かれの個性は人格となることを止めて一つの現象”

필자는 아쿠다가와의 죽음이 당시 시대에 미친 충격의 무게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井上良雄씨의「芥川竜之介と志賀直哉¹²⁾」이라고 생각한다. 井上良雄씨는 그의 죽음은「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문제」이며,「우리 지성의 무력」을 증명하였다고 하고, 그 비극을 초극(超克)하는 것으로 志賀直哉의 세계를 대치시키고 있다.

또한 아쿠다가와의 죽음에 새로운 시점을 제시한 것은「芥川竜之介の死¹³⁾」를 기술한 吉本隆明씨이다. 씨는 아쿠다가와의 죽음은「순연한 문학적인, 또 문학적인 죽음이며, 인간적, 현실적 죽음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대대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다¹⁴⁾」라 하여, 大山씨나 宮本씨 井上씨 등의 패배이론을 부정하고, 중산계급출신의 지식계급으로서 숙명적 생애를 드라마처럼 살다 생을 마감한 작가라고 하였다.

佐藤泰正씨도「芥川竜之介管見¹⁵⁾」에서 지상으로부터의 탈출과 환상(還相¹⁶⁾)이라는 이원적인 새로운 시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梶木剛씨는「芥川竜之介の位相をめぐる¹⁷⁾」에서 吉本씨나 佐藤씨의 논리를 베이스로 자연과 지식이라는 시점에서 아쿠다가와의 지식주의의 패배 증언이 사상적 양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三好行雄씨는『芥川竜之介論¹⁸⁾』에서「이 작가의 자아가 결코 광기나 충동의 발작이 아니라 소위 자신의 생과 문학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어낸 결단이며 선택이었다.」고 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나아가 씨는「芥川竜之介の死¹⁹⁾」에서 아쿠다가와가 당시 보았던 것과, 후대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상대화시켜 아쿠다가와의 죽음을 역사의 선상에 바르게 위치·평가하는 것, 아쿠다가와 문학의 고리 안에서 어떠한 드라마가 연출되었던 것인지, 또 아쿠다가와가 죽음에 의해 소유하게 된 것과 후대에 남긴 것 등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작가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은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지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12) 『磁場』昭和7(1932) “我々自身の死の問題” “我々の知性の無力”

13) 『国文学解釈と鑑賞』昭和33(1958)

14) “純然たる文学的な、また文学作品的な死であって、人間的、現実的な死ではなかった。したがって、時代思想的な死ではなかった.”

15) 『国文学研究』24、昭和36(1961)

16) 불교용어. 극락왕생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중생을 깨우쳐 불도로 인도하는 일.

17) 『思想的査証』國文社,昭和46(1971)

18) 筑摩書房,昭和51(1976)“この作家の自我が決して狂気や衝動の発作ではなく、いわば自己の生と文学のすべてを賭けてなされた決断であり、選択であった”

19) 『近代文学』5有斐閣,昭和52(1977)

3. 사색과 죽음

그럼 아쿠다가와는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아쿠다가와는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誰もまだ自殺者自身の心理をありのままに書いたものはない…僕は君に送る最後の手紙の中に、はっきりこの心理を伝えたいと思っている。…中略…君は新聞の三面記事などに生活難とか、病苦とか、或は又精神的苦痛とか、いろいろの自殺の動機を発見するであろう。しかし僕の経験によれば、それは動機の全部ではない。のみならず大抵は動機に至る道程を示しているだけである。…中略…少くとも僕の場合は唯ぼんやりした不安である。何か僕の将来に対する唯ぼんやりした不安である。(或旧友へ送る手記)

여기서 그는 자살의 심리 및 나아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선명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실마리의 이해를 위해 아쿠다가와의 성장과 생애를 통한 그의 사색에 대해 주목, 검토해가고자 한다.

아쿠다가와는 메이지25년 新原敏三의 장남으로 도쿄에서 출생하였다. 생후 8개월 되던 때, 생모 후쿠(フク)가 돌연 정신병에 걸리면서 이모(フキ)의 손에 의해 친척 芥川道章에게 맡겨졌다. 이 후 芥川부처를 양친으로 믿으며 이모 후키의 보살핌 속에 자라난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혼자 구사조지(草双紙²⁰⁾)를 읽어낼 만큼 총명한 아이였다. 생모는 가끔 아쿠다가와를 찾아왔지만 담뱃대로 머리를 맞았던 기억이 전부라고 후년 아쿠다가와는 「僕は一度も僕の母に母らしい親しみを感じたことはない」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녀는 아쿠다가와 11세 되던 해 세상을 버린다. 후쿠가 세상을 버리자, 생부 敏三은 아쿠다가와를 데려오고자 노골적으로 제의를 하였다. 12세의 아쿠다가와는 재판소에서 심문까지 받아가며 정식 芥川家の 양자가 된다. 이 사건은 「氣に入られなければ、捨てられるかもしれない」라는, 어린 소년의 마음에 타산적 인간의 모습을 강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양자라는 신분적 불안에서 더욱 공부에 매진한 아쿠다가와는, 21세 때 동경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23세 때 靑山女学院의 吉田弥生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생각하지만 弥生는 新原家와 친한 집안의 딸로서 무사집안이 아니며 사생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이유로 芥川

20) 江戸시대 그림이 들어있는 단편 대중소설의 한 양식. 동의어 絵双紙

家 특히 이모 후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인간의 이기주의를 보게 된 아쿠다가와는 우인에게 보낸 편지에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如何に血族の關係が稀薄なものであるか…如何に相互の理解が不可能であるか。イゴイズムのない愛がないとすれば人の一生程苦しいものはない。周囲は醜い。自己も醜い。そしてそれを目のあたりに見て生きるのは苦しい」

또한 실연(失戀) 직후에 쓴 『仙人』에는 「何故生きてゆくのは苦しいか、何故、苦しくとも、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라고 하여, 평생 이 질문은 아쿠다가와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문호(文豪) 夏目漱石과의 만남이다. 漱石가 제자와 면담하는 「목요회」에 참가 후, 아쿠다가와는 漱石의 학식과 인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후 어둡게 침묵하는 자신과는 동떨어진 소설을 쓰고자 『今昔物語集』를 제재로 『羅生門』을 집필 하였고, 계속해서 잡지 『新思潮』를 간행하게 된다. 그 창간호에 발표한 단편 『鼻』는 漱石의 주목을 받아 漱石는 기대되는 제자 아쿠다가와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보냈으며 그것은 최고의 칭찬으로 나열된 문장이었다. 漱石로부터 예상외의 격찬을 받은 아쿠다가와는 대학졸업을 근간으로 25세의 나이에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반면 『中央公論』에 게재된 『手巾』는 「무엇을 쓰려고 한 것인지 어수선하여 알 수 없다²¹⁾」 「어디가 재미있다는 것인지」등, 호평이 아닌 비판의 대상이었다. 본질에 다가선 건설적 비평 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자신과의 감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전면적 부정, 내지는 평가자의 공부 부족, 시대인식 차이 등, 더구나 단순한 시샘으로 혹평을 받은 것이어서 젊은 아쿠다가와는 시간·노력·열의로 성실히 노력해온 결과가 몇 줄의 비평으로 파괴되는 것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정면적 반론은 제기하지 않은 채 창작에 몰두하였다.

졸업 후, 아쿠다가와는 해군기관학교 영어교사가 된다. 漱石의 부고를 받은 것은 그 직후로 만남에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여전히 漱石의 지도가 필요했지만, 그는 슬픔을 딛고 교육, 창작, 독서에 열중하였다.

월급과 원고료로 생활이 가능해지자, 27세 되던 해, 8세 연하의 塚本文와 결혼한다. 아쿠다가와는 바빠도 결혼 전에는 애정 어린 편지는 잊지 않고 있다.

「2人きりで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話したい気がします。そうしてKissしてもいいでしょ

21) “何を書こうとしたのか雑然として分かってこない” “どこが面白いのかという気がする”

う。いやならばよします。この頃ボクは文ちゃんがお菓子なら頭から食べてしまいたい位可愛い気がします…中略…何よりも早くいっしょになって仲よく暮らしましょう。」

그러나 결혼 후의 현실은 번잡하고 귀찮았던 모양이다. 「新婚當時の癖に生活より芸術の方がどの位つよく僕をグラスプ(心をつかむ)するかわからない」라고 친구에게 내뱉고 있다.

1년 후, 아쿠다가와는 毎日新聞 사원이 되어, 글쓰기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작품은 매너리즘화 하여 위기를 부르고, 장편소설에 대한 의욕도 표류하면서 성공하지 못한다. 이 무렵 아쿠다가와는 신인작가 모임에서 기혼자인 秀しげ子を 만나게 된다. 秀しげ子は 여성이 적었던 당시 문단에서는 화려한 존재였다. 한 때 아쿠다가와는 그녀를 연모하여 밀회를 가졌다. 하지만 しげ子에게는 다른 연인이 있었고 더구나 상대는 자신의 친구였다. 아쿠다가와는 점차 그녀의 이기적인 본성을 알게 되면서 秀しげ子を 멀리하였지만 그녀는 아쿠다가와를 놓아주지 않았으며 자택까지 찾아오기도 하였다.

창작과 여성문제, 더구나 그를 괴롭힌 것은 장남의 탄생이었다. 芥川家に 있던 양부모와 이모 フキ는 손자를 과잉 사랑하여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하였다. 세대차에서 오는 어려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에도 지친 아쿠다가와는 자전적 소설 『或阿呆の一生』에서 장남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何の為にこいつも生れてきたのだろう? この娑婆苦の充ち満ちた世界へ」

30세에 해외특과 근무로 중국에 부임하지만 이를 계기로 건강을 버리게 된다. 특히 설사로 고통을 받았다. 신경쇠약증도 발병하여, 이후 질병과의 투병생활이 이어졌다. 34세 겨울 아쿠다가와는 당시 작가들의 대표작을 모은 『近代日本文芸読本』을 간행한다. 100여명 이상의 작가들에게 스스로 편지를 써서 수록 승낙을 받는 것은 보통의 힘든 작업이 아니었고, 2년에 걸친 노력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일의 성질 상 그 수입은 적었다. 그럼에도 「아쿠다가와는 혼자서만 돈을 벌어 서재를 신축했다²²⁾」는 소문이 문단에 떠돌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싼고자 고투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당해 작가들로의 악평뿐이었다. 성실함이 적어 돌아오자 아쿠다가와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신경쇠약은 더욱 악화, 수면제를 애용하게 된다.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オピウム(アヘン)毎日服用致し居り、更に便秘すれば下剤をも用い居り、なお又その為に痔が

22) “芥川は1人だけ儲けて、書齋を新築した”

起れば座薬を用い居ります。中々薬ではありません。」

라고 쓰고 있다. 창작활동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제재에 목말랐던 아쿠다가와는 위와 장마저 나빠져, 신경쇠약 상태에서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생애 마지막 해가 되는 쇼와 2년이 황망함 속에 막이 올랐다. 1월 4일 여동생 히사의 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히사의 남편 西川豊는 화재보험을 노린 방화혐의를 받아 6일 철도 자살을 한 것이다. 사건의 뒤처리에 매달리게 된 아쿠다가와에게는 이미 8명의 부양가족이 있었다. 처와 세 아이, 양부모에 이모 フキ, 그리고 히사의 전 남편의 아이였다. 거기에 西川の 유족이 더해지면서 12명으로 늘어났다. 또 西川가 빌려 쓴 높은 이자의 돈을 아쿠다가와가 떠맡게 되면서 그의 어깨를 한층 무겁게 짓눌렀다. 병도 잇은 채 동분서주하는 동안 아쿠다가와는 맹렬한 기세로 글을 써 내려 갔다.

「言いようのない疲労と倦怠とが、重たくおれの心の上にのしかかっているのを感じていた。寸刻も休めない売文生活!」(東洋の秋)

「僕は多忙中ムヤミに書いている。婦人公論12枚、改造60枚、文藝春秋3枚、演劇新潮5枚、我ながら窮すれば通ずと思っている。」

한 지인에게 보낸 글을 통해 다작 뒤에 숨은 그의 필살의 문필활동이 사실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즉 심증은 오로지 죽음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청년시대의 죄는 또한 그를 괴롭혔다. 秀しげ子は 처자와 집에서 요양 중인 아쿠다가와를 갑자기 방문하여 「내 아이, 당신을 닮지 않았어?」²³⁾라는 말로 아쿠다가와의 가슴을 찢으며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었다. 유고집 『齒車』에는 다음과 같은 비통한 고백을 쓰고 있다.

「僕は罪を犯した為に地獄に堕ちた1人に違いなかった」

「僕はあらゆる罪惡を犯していることを信じていた。」

아쿠다가와는 기력과 수면제로 겨우 생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그는 단지 죽고 싶어 한다기보다, 산다는 것에 질려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생을 돌아보아 눈물과 냉소가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던 아쿠다가와는 남은 것은 다만

23) “私の子、あなたに似ていない?”

발광 내지는 자살뿐이었다고 『或阿呆の一生』에 적고 있다.

『齒車』에서

「僕はもうこの先を書きつづける力を持っていない。こう云う気もちの中に生きているのは何とも言われない苦痛である。誰か僕の眠っているうちにそっと絞め殺してくれるものはないか?」

라는 말을 유고로 남김 채, 마침내 36년의 짧은 생애를 악물자살로 막을 내렸다. 유고에는 자살의 이유에 대해,

「何か僕の将来に対する唯ぼんやりした不安である」(或旧友へ送る手記)

라고 기록하고, 살아가야 할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불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aku다가와의 목적 없는 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슬픈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살아가는 의미를 모른 채 무의미한 일생이라고 통감한 aku다가와의 깊은 고뇌는 그를 목적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음에 틀림없다. 인생은 이렇듯 상처받은 천재작가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시련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aku다가와의 사색의 말들을 짚어보자.

- 人生は地獄よりも地獄的である(侏儒の言葉)
- 人生は一箱のマッチに似ている。重大に扱うのはばかばかしい。重大に扱わねば危険である。
- あらゆる神の属性中、最も神のために同情するのは神には自殺の出来ないことである。
- 自由は山巔の空氣に似ている。どちらも弱い者には堪えることは出来ない。
- 他人を弁護するよりも自己を弁護するのは困難である。疑うものは弁護士を見よ。
- 阿呆はいつも彼以外のものを阿呆であると信じている。(『河童』)
- 人間的な、余りに人間的なものは大抵は確かに動物的である。
- わたしは良心を持っていない。わたしの持っているのは神経ばかりである。
- 眠りは死よりも愉快である。少くとも容易には違いあるまい。
- 天才の一面は明らかに醜聞を起し得る才能である。(『侏儒の言葉』)
- 人生は一行のボオドレエルにも若かない。(『或阿呆の一生』)
- 恋愛はただ性欲の詩的表現をうけたものである。
- 或売笑婦と一緒に彼女の賃金(1)の話をし、しみじみ<生きる為に生きている>我々人間の哀れさを感じた(或旧友へ送る手記)昭和2年7月
- 醜惡な人間が、苦しくとも生きねばならぬ理由は何か。

이상의 사색의 말들을 통해 아쿠타가와가 끊임없이 고난과 싸우면서 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의미도 목적도 모르는, 다만 「生きるために生きる」 이상의 비극을 감당할 수 없어하였음을 추론하여 알 수 있게 한다.

4. 자살의 인간심리

그럼 인간은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아쿠타가와와 경우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를 삶의 욕구충동(Lebe-enstrieb)과 죽음의 욕구충동(Todestrieb)으로 보았다²⁴⁾. 이것은 인간에게는 삶을 지향하는 즉 살고자 하는 경향과 그와는 달리 죽음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양자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은 살아 있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이론이다.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의 욕구충동은 사람에게 내재된 인류 공통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즉 자살은 과거나 현대사회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왜 사람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 죽음에 대한 욕구충동은 자살과 어떻게 관련지어져 있을까? 자살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Freud가 말한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의 욕구충동에 대해 본고에서 지금 재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이 도리어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보다 확고히 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생각했던 인물이 아쿠타가와와 경우가 아닐까 한다. 그는 자신을 과멸로 이끄는 운명에 대해 두려워하며 「명한 불안(ぼんやりとした不安)」에 싸여 심신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의 욕구충동 간 갈등이 존재하였을 것임은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Freud는 마조히즘²⁵⁾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간은 자기파괴 경향에서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하

24) 삶의 충동(Lebenstrieb)과 죽음의 충동(Todestrieb): 『快感原則の彼岸』(1920) 프로이트에 의해 도입된 개념.

25) 피학성 변태 성욕

여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파괴할 필요를 느끼는 바깥세상(外界)을 향한 공격성에 대해 기술하고, 죽음의 욕구충동이 외계(外界)로 향해 질 때, 그것은 파괴충동, 지배충동, 권력충동 등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생의 욕구충동으로 이어져 맺어지는 것을 사디즘²⁶⁾이라고 하였다²⁷⁾. 이러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사람이 파괴충동을 외부 세계로 향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공격성은 자신을 향하게 되며, 자기파괴 내지는 자살을 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에 있다. 그것은 죽음의 욕구충동에 대한 생의 욕구충동의 패배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충동과 갈등 속에 항상 드러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영역의 도달을 의미한다. 반대로 말하면 보통 생의 욕구충동은 죽음의 욕구충동을 항상 억누르고 있으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완수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의 욕구충동을 증폭시키고 죽음의 욕구충동을 봉쇄하기 위한 필요 요소는 무엇일까? 아쿠다가와의 생의 충동욕구와 죽음의 욕구충동과의 갈등의 경우를 들어 그 해답을 얻어 보기로 한다.

4.1 고독과 모친

우선 모친인 생모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고독이다. 작품 『大導師信輔の半生』은 1924년 즉 아쿠다가와가 자살하기 약 3년 전 완성된 소설이다. 그 작품명대로 大導師信輔라는 인간의 반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지만, 大導師信輔라는 인간이 아쿠다가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의 모친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려져 있다. 아쿠다가와는 모친의 젖을 먹은 적이 없고 우유로만 자라났다. 이것을 「憎まらずにはいられぬ運命」이라고 하였다. 그는 왜 공격성을 타인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을 책망하며 비난하였던 것일까? 그 뒷면에는 그의 인생을 꿰뚫듯 관찰되고 있는 고독이 보일 듯 숨겨져 있다. 그 발단은 『大導師信輔の半生』에서 「僕の母は狂人だった」라는 기술에서도 그에게 모친은 어떠한 존재였는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福島 章씨는 이것이 「아쿠다가와에게 3중의 그늘」을 드리웠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⁸⁾. 첫째는 생물학적 유전의 영향이다. 그것은 만년의 아쿠다가와 자신도 통합실조증²⁹⁾(統合失調症)상태라고 생각한 데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모자관계에서

26) 학대성 음란증/虐待性淫亂症

27) 프로이트는 죽음의 욕구 충동의 현상으로서「우리가 다루는 것은 결코 순수한 충동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있어 두 가지 욕구충동이 뒤섞인 것이다」(1926)라고 하고,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의 욕구충동의 혼합물로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들고 있다.

28)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 pp.169-174

29) 통합실조증(일본어/とうごうしっちょうしょう, 독일어/Schizophrenie, 영어/schizophrenia)이란 옛날에는

발생하는 문제이다. 福島씨가 「어린 아이의 성격에 기본적인 안심감·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기술하듯이, 모친과의 만족한 접촉이나 수유를 받지 못했던 아쿠다가와는 이미 인간관계 형성에 근본적 상처를 받게 된 체험을 유아기에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정신병에 대한 공포이다. 당시 정신병은 오로지 유전에 의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다. 아쿠다가와 자신도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아난가하는 불안과 공포는 언제나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처럼 정신병자였던 모친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가히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쿠다가와에게 모친은 다만 두려워할 대상이었던 것일까?

Freud의 죽음의 욕구충동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어머니상의 마지막 도달은 결국 훌륭한 모친상이다. 하지만 아쿠다가와에게는 파괴하여 삼키고 싶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모친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유년기 아쿠다가와의 심층은 이미 죽음을 향한 욕구충동이 가득 차 버렸는지도 모른다. 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써 그야말로 모친이라는 좋은 대상을 스스로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즉 스스로 좋은 부분을 보호·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안의 좋은 부분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사회학자 Klein³⁰⁾의 말을 빌리면 「죽음의 본능에의 편향에 따라 자기 자신은 나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Klein이 「일반적으로는 고독은 소속될 인물이나 집단이 없다는 확신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가정 된다」고 기술하였듯이, 고독이란 「소속감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자신조차도 혐오하고 두려워할 존재라는 사고 속에서 소속감 따위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 Klein은 통합 실조증자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본래 대상인 모친을 좋은 대상으로 충분히 내재화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기초적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빼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그들은 외적인 좋은 대상, 내적인 좋은 대상, 또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소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아쿠다가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아쿠다가와가 병적학적 견지에서 통합실조증이었다는 것은 단지 우연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모친과의 사이에서 사랑에 대한 큰 상처를 입은 아쿠다가와는 『大導寺信輔の半生』에서,

「何を知らぬにもせよ、母の乳だけは知っている彼(芥川)の友だちを羨望した」

라고 하여, 이로써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년배 친구를 선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精神疾患(정신장애)군의 명칭. 이 증상의 상담과는 정신과이며, 정신과 의사가 진찰에 임함.

30) Klein, M(1957) 『Envy and Gratitude』小此木啓吾・岩崎徹也(編訳1996) 『羨望と感謝』メラニー・クライン 著作集 5, 誠信書房, pp.33-89

과도한 선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아쿠다가와에게 세상은 나쁜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의 좋은 부분을 찾아 키워나가기란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아쿠다가와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편안함이나 안전감 등은 느낄 수 없었고 다만 고독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의 인연을 느낄 수 없었던 아쿠다가와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면서 서서히 죽음으로의 충동에 빠져들어 갔을 것이다.

Freud도 스스로를 지배한 죽음에의 욕구충동 존재를 가정하고 있듯이, 아쿠다가와 또한 자신을 지배하려는 죽음을 향한 충동적 힘을 느끼고 두려웠음에 틀림없다. Freud가 죽음에의 욕구충동을 발견하고 그 존재를 주장한 내적 필연성에 대해 伊藤良子씨는 「Freud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의 극복」 즉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기 위한 수단이었다³¹⁾고 기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쿠다가와 또한 죽음에의 공포와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쿠다가와는 Freud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지배하는 죽음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Freud는 죽음의 욕구충동을 공식화하기보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서지만, 아쿠다가와는 뛰어넘지 못했다. 오히려 심신은 가혹하게 소모되어 갔을 뿐이다. 자신의 배후에 있는 것을 이론화시키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서 삶을 완수한 Freud와, 계속 두려워하다 자살하기에 이른 아쿠다가와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아쿠다가와는 「狂人の娘」에서 직면하고 있는 「악마」적이라는 것 또한 Freud가 기술한 데모니시(악마적, 초인간적, 초자연적/デモーニッシュdamonisch)와 의미를 같이 하는 것으로 운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였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4.2 고독과 불안의 중첩

『或阿呆の一生』에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정신적·육체적으로도 잃어버린 단지 죽음을 목전에 한 아쿠다가와를 그려내고 있다. 그야말로 죽음의 욕구충동에 패배하고 만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유고작이 된 『齒車』에서 아쿠다가와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운명과 불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齒車』에는 이야기의 줄거리나 스토리라고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각으로 보이는 「齒車」를 두려워하면서 「何ものかこ狙われている不安」감에 떨며 점차 죽음으로 물리고 있는 주인공(아쿠다가와)의 모습을 그저 엮어 써내려 가고 있다. 아쿠다가와가 바라본 톱니바퀴의 환각은 불안이 구현화(具現化)한 이미지이다. 불안이

31) 伊藤良子(1988)「死の欲動」論の彼岸:山中康裕・斎藤久美子(編), 臨床的知の探究, 河合隼雄教授還暦記念論文集下, 創元社, pp.233-257

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막연한 것이다. 「よくわからないもの」「とらえられないもの」라고 했듯이 대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야말로 그것은 사람에게 미지한 것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협과 파멸로의 공포를 드리우게 된다. 파멸로의 두려움이란 그야말로 Klein이 기술하였듯이 죽음의 욕구충동에 따른 것이며, 불안이라는 것은 죽음의 욕구충동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齒車』에서의 불안, 그것은 또한 아쿠다가와의 유서에 기록된 자살원인 「ぼんやりとした不安」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이야말로 아쿠다가와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라면 모친을 매개로 체외로 나옴으로써 해소되어야 할 원초적 불안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없었던 까닭에 몸 안에 머물며 고독과 함께 계속 증폭되어진 것이 죽음에의 욕구충동이 아닐까.

山中康裕³²⁾씨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의 불안은 유아기의 외상체험, 특히 유난히도 그의 모친과의 관계에서 귀결되어질 것이다」라고 했듯이, 원초적 불안만이 아닌 狂人이었던 모친과의 관계에서 어린 아쿠다가와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고, 그렇게 겹쳐진 고독과 불안은 이후 아쿠다가와의 전 인생을 통해 관철되었던 것은 아닐까.

「ぼんやりとした不安」에 쌓여 육체적으로도 대항할 수 없게 된 아쿠다가와는 결국 마침내 약물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쿠다가와의 본의 내지는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필자에게는 있다. 사실은 아쿠다가와는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4.3 삶과 사랑

아쿠다가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미신이나 감상주의와 싸우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만년의 작품들을 집필하고 있었던 것일까?

『齒車』『玄鶴山房』에서 아쿠다가와는 주인공들에게 죽음을 원하도록 하면서도 굳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까지 『地獄変』이나 『河童』의 주인공들이나 등장인물에게는 자살을 시키고 있지만, 가장 만년의 작품 속 주인공들에게서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생을 곳곳이 살아가고자 한 아쿠다가와가 죽음의 욕구충동에 저항하려는 심정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한다.

『玄鶴山房』에서는 자살을 결행하였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현장을 들키면서 단념하게 된다.

32) 山中康裕(1999) 「芥川龍之介の病跡-不安と苦悩とその実存」 『心理臨床と表現療法』 金剛出版 / “Freudに従えば彼の不安は、幼児期の外傷体験、とりわけ、彼の母親とのかわりにおいてのそれに帰せられるであろう”, pp.199-251

여기서 아이는 그야말로 생의 욕구충동으로서 주인공에게는 희망을 안겨준다. 아쿠다가와가 아이에게 이 역할을 맡긴 것은 의미 깊다. 『河童』의 출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쿠다가와가 자신의 아이에게 가졌던 심정은 참회나 회한 등, 떳떳하지 못한 감정뿐이었다. 그러한 아쿠다가와 자신은 아이에 대해 희망을 가질 자격 등은 없다는 결의가, 반대로 아쿠다가와의 바램으로 전화되면서 『玄鶴山房』 속에 표현되어 진 것은 아니었을까. 아이라는 존재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아쿠다가와 자신에게 있어서도 구세주였다고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쿠다가와의 만년의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고독에의 저항이라고도 할 태도가 점점 보여 지며, 고독을 벗어나고자하는 강한 의지도 느끼게 된다. 즉 아쿠다가와는 시대조류에 농락당하고 세상에 절망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건강을 잃고 정신적 허약 앞에서 죽음의 욕구충동 앞에 저항할 방법이란 없었다. 그 결과 악물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쿠다가와는 생의 영위를 단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둘러싼 운명에의 저항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스스로의 손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운명으로부터 생의 자유를 탈환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욕구충동 앞에 계속 농락당하여 온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삶에의 정의」를 표한 행위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5. 결 론

이상으로 아쿠다가와의 죽음, 즉 자살에 대한 당시 혹은 근년에 이르는 종래의 논리나 기존설에 대해 검토하였다. 동시에 아쿠다가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점의 모색으로서 Freud의 『快感原則の彼岸』에서 도입한 자살을 하는 인간 심리를 삶과 죽음의 욕구충동적 전지에서 아쿠다가와의 경우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결국 아쿠다가와의 자신의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던 두 가지 욕구충동을 보아감으로써 아쿠다가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해명을 통해 결국 「生きるとはなにか」에 대한 그의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아쿠다가와의 죽음에 관해서는 정신장해나 통합실조증과 관련하여서는 吉本隆明³³⁾씨의 「出身コンプレックス」등의 틀 안에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통합실조증이 원인」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라는 생각도 아쿠다가와의 죽음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라

33) 吉本隆明(1958) 「芥川龍之介の死」 『国文学 解釈と鑑賞』 23(8), pp.2-8

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병리나 출생신분 레벨에서 아쿠다가와의 죽음을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더 인간의 원초적·근원적 부분에서의 초점으로 바라 본, Freud의 욕구충동 시점에서 아쿠다가와라는 문학자의 죽음에의 도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고찰이 아닌가 한다.

만년의 아쿠다가와는 심신이 허약 할대로 허약해지면서도 끝까지 작품을 쓰고 있다. 그 삶과 죽음의 틈새라고도 할 상태에서 생산해 낸 작품 군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지금은 더구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아쿠다가와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인간의 본질적 요소인 삶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점은 유효한 것이라고 하겠다.

죽음에의 욕구충동 개념에 대한 여러 다양한 비판 가운데에서도 Bibring은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격본능과 파괴본능의 사고만으로 충분³⁴⁾」하다고 했지만, 아쿠다가와에 관해서는 대개 공격성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삶에의 욕구충동과 죽음에의 욕구충동의 갈등이라는 관점, 그리고 자신과 그 죽음에 대한 아쿠다가와의 작품, 그리고 사색들을 통하여 그를 보아가는 과정에서 Freud 그 외 Klein의 이론과 공통성을 몇 개 찾을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없었던 것은 지면상의 문제도 있지만, 아쿠다가와가 느끼고 있었던 「ぼんやりとした不安」의 정체는 그의 깊은 고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쿠다가와가가 고독이나 불안에 괴로워하며 거기에서 탈각하기 위해 사랑을 찾고 있었다는 새로운 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아쿠다가와가 사람과의 관계를 고통으로 느끼며 주어진 고독에 만족하려고 하였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시 사람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한 생에 대한 욕구충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쿠다가와도 늘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다시 헤어지고 괴로워하였지만 생의 욕구충동에는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꿈틀거리는 생의 욕구충동과 죽음에의 욕구충동 속에 갈등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간다. 따라서 「生きるとは何か」에 대해 아쿠다가와를 경우를 들어 지금까지 기술한 바에서 얻게 된 하나의 결론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에의 탐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과 행복의 탐구를 중도에서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아쿠다가와라는 인물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삶의 귀중함과 삶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본고의 고찰로 아쿠다가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점에서 시사하였지만, 보편적 인간의 삶의 의미를 사랑과 행복의 탐구라는 점에서 찾고 보니 차후 이상의 결론을 포함하여, 삶과 죽음의 욕구충동 갈등에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34) Bibring, E(1941)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the instincts, Int. J. of Psycho-Anal vol.

【參考文獻】

- Bibring,E(1941)「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the instincts, Int. J.Psycho-Anal」vol.22
- Freud,S(1915)『Trieb und Triebchicksale』小此木啓吾(訳:1970)「本能と7その運命」Freud著作集 第6巻, 人文書院 pp.59-77
- Freud,S(1920)『Jenseits des Lustprinzips』小此木啓吾(訳:1970)「快感原則の彼」Freud著作集 第6巻 人文書院 pp.150-194
- Freud,S(1938)『Abriss der Psychoanalyse』小此木啓吾(訳:1983)「精神分析学概説」Freud著作集 第9巻 人文書院 pp.156-211
- Klein,M(1958)『On the Development of Mental Functioning』佐野直哉(譯,1996)「精神機能の発達について」小此木啓吾・岩崎徹也(編訳)(1996)「羨望と感謝 メラニー・クライン」著作集 5誠信書房, pp.91-102
- Klein,M(1957)『Envy and Gratitude』松本善男(訳:1996)「羨望と感謝」小此木啓吾・岩崎徹也(編訳)(1996)「羨望と感謝」メラニー・クライン著作集 5誠信書房, pp.33-89
- Klein,M(1963)『Sence of Loneliness』橋本雅雄(訳:1996)「孤独感について」小此木啓吾・岩崎徹也(編訳:1996)「羨望と感謝メラニー・クライン著作集 5誠信書房, pp.179-194
- _____ (1927)「芥川龍之介の死とその芸術—実践的自己破壊の芸術」『中央公論』
- 中村武羅夫(1927)「芥川氏と私」『文芸春秋』
- 菊地寛(1927)「芥川龍之介の事ども」『文芸春秋』
- 吉本隆明(1958)「芥川龍之介の死」『国文学 解釈と鑑賞』23(8), pp.2-8
- 芥川龍之介(1968)『芥川龍之介集』「現代日本文学大系43」筑摩書房
-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 pp.169-174
- 伊藤良子(1988)『死の欲動論の彼岸』山中康裕・斎藤久美子(編) 臨床的知の探究 河合隼雄教授還暦記念論文 集下, 創元社, pp.233-257
- 山中康裕(1999)『芥川龍之介の病跡—不安と苦悩とその実存』心理臨床と表現療法, 金剛出版, pp.199-251
- _____ 『아쿠다가와문학작가론사전』「죽음과 그의 시대」, p.70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要旨>

아쿠타가와(芥川)의 사색(思索)과 죽음

- 자살을 하는 인간심리를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아쿠타가와(芥川)의 죽음, 즉 자살에 대해 당시 및 최근에 이르는 종래의 논리나 기존설에 대해 검토한다. 동시에 아쿠타가와(芥川)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시점의 모색으로서, Freud의 “쾌감 원칙의 피안”으로부터 도입한 자살을 하는 인간심리를 삶과 죽음의 욕구 충동적 견지에서 아쿠타가와(芥川)를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아쿠타가와(芥川) 자신의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던 두 욕구의 충동을 보고 감으로써, 아쿠타가와(芥川)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존재해명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로써, 아쿠타가와(芥川)의 죽음에 대한 정신장애나 정신분열증과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것은 병리학적 또는 출생신분적 차원에서의 죽음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Freud가 지적한 두 가지 욕구 충동적 시각에서, 인간의 원초적근원적 시점에서 아쿠타가와(芥川)라는 한 문학자의 죽음의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아쿠타가와(芥川)가 느꼈던 “알 수 없는 희미한 불안” 자체는 그의 깊은 고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쿠타가와(芥川)가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거기로부터 탈각하기 위해 도리어 사랑을 갈구·요구하며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내재한 삶에 대한 욕구 충동에 의한 것이라면, 아쿠타가와(芥川)의 경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으로서 보편적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에 대한 탐구”가 아닐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Thoughts about Life and Death by Akutakawa

In this paper, Thoughts About Life and Death by Akutakawa, the author examines the origin of conventional logic. From its beginnings through its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At the same time, the paper searches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asoning behind suicide. It draws on Freud's research on human psychology and his study of human desires and impulses that relate to life and death. Through Akutakawa's research we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ystery of existence and the struggle between life and death.